

본문 : 레위기 23 장 39-43 절

제목 : 빛을 비추는 거울

1. 절기, 시간의 변화의 리듬

한강 작가의 <빛과 실>이라는 책의 일부에 작은 정원을 가꾸며 기록한 정원 일기가 있습니다. 한강 작가가 몇 년 전에 조그만 마당이 있는 집에 이사를 갔다고 합니다. 뒷뜰이 북쪽에 위치해 있는 집인데 북쪽이니 햇볕이 잘 안 들어왔나 봅니다. 그곳에 작은 정원을 꾸며서 라일락 나무, 단풍 나무, 예쁜 꽃들을 심기 위해 정원사의 도움을 받습니다. 그늘에서도 잘 자라는 나무들을 심었지만, 그래도 걱정이 됐는지 정원사가 웃으며 경고했다고 합니다. “그늘에서도 잘 자라는 아이들이긴 하지만, 그래도 건강하게 크게 하려면 거울을 이용하시는 것도 좋아요.” “거울이요?”하며 놀라 되묻는 작가에게 조경사가 하는 말이 “남쪽으로 비치는 햇빛을 주는 거예요. 반사시켜서. 여기는 종일 햇빛이 없잖아요.” 작가는 각도가 조절되는 작은 탁상용 거울을 세 개를 사서 나무들에게 비춰주기 시작했습니다. 몇 날이 안 되어 세 개를 더 주문해 여섯 개의 거울로 나무들에게 햇빛을 비춰주었다고 합니다. 태양의 뜨고 짐과, 계절의 변화에 따라 거울의 각도를 달리하는 이 일을 시작하기 전까지 그는 햇빛이 정확히 무엇인지 잘 몰랐다고 고백합니다. 그는 햇빛이 가득한 날에 거울의 각도를 돌려주는 것을 통해 태양의 그 단호한 속력에 놀랐다고 합니다. 계절의 변화를 통해 달라지는 햇빛의 입사각을 경험하며 또한 태양의 공전 속도가 얼마나 빠른 지를 감각했다고 합니다.

인류는 태양의 이동과 흐름에 따라 시간을 나눴습니다. 절기는 시간과 계절의 변화를 일정한 마디로 구분한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연의 순환과 숨결을 따라 시간을 구분지어 철에 맞게 살아가기 위해 절기를 만들었죠. 우리 나라에는 24 절기가 있는데, 농경문화에서 만들어진 시간의 리듬입니다. 지난 11 월 7 일은 입동이었습니다. 어린 시절을 생각해 보면 입동 즈음 되면 거울 준비를 시작합니다. 창호문들마다 찢어졌던 창호지도 새 걸로 바꿔줘야 합니다. 땔 나무들도 산에서 해서 쌓아 두어야 합니다. 산에 떨어져 마른 소나무 이파리를 모아서 포대에 담아 내려 오고, 마른 가지들을 모아 지게로 날랐던 일이 기억납니다. 어머니는 배추와 무를 수확하여 김장 준비를 하고, 아버지는 김장을 저장하기 위해 땅을 파서 독을 묻기도 했지요. 아주 옛날 이야기처럼 들리지만 저 어릴 적 늦가을의 풍경입니다. 어떤 시인이 이런 글을 썼더라구요. “낙엽이 이렇게 서럽게도 지는데 도무지 그리운 것이 하나도 없다. 아, 이렇게 맛이 가는 거다.”

참 공감이 있습니다. 도시의 삶이고 한국과는 너무나 먼 이역만리 타향살이지만 절기를 기억하려는 이유는 그리움을 놓지 않기 위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2. 절기에 떠나는 순례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들 나뭇의 절기가 있었습니다. 팔레스타인 땅을 근거지로 농경문화를 했던 그들도 크게 세 절기를 지켰지요. 유월절(Pascha), 칠칠절(Shavuot), 초막절(Sukkot)이라는 삼대절기는 모두 농사와 연관되어 있었죠.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 절기들이 각각 그들의 조상들의 역사적인 경험들과 연결되어 있었다는 겁니다. 초봄에 맞는 유월절에 보리와 아마 수확이 있었고 조상들이 이집트를 탈출한 것을 기념했습니다. 칠칠절은 이른 무화과와 포도 그리고 밀을 수확하는 절기로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 것을 기념하는 절기였죠. 대추야자와 여름 무화과를 수확하는 초막절 절기는 조상들의 광야 생활을 기념하고 되새기는 절기였습니다. 그러니까 각각의 절기를 지키는 예전과 리듬을 통해 그들은 농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감사를 드렸습니다. 또한 그들 민족의 역사적인 구원의 경험과 연결하여 하나의 정체성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절기는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민족의 정체성과 연결된 중요한 삶의 리듬이었던 것이죠. "Habit is stronger than reason." 이란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을 비쳐 보면, 절기를 지키는 리듬과 습관을 통해 절기를 지키는 이유가 몸에 베이는 것이죠. 일상에서도 습관은 매우 중요합니다. 매주 주일 예배에 참석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습관입니다. 매일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습관이 있는 사람이라면 그는 복된 삶을 사는 겁니다. 저도 매일 성경 필사를 40-50 분씩 합니다. 절기나 반복적인 리더지의 습관을 통해 우리는 우리 삶의 근원과 다시 연결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미국에서도 몇 가지 절기가 있는데 가장 큰 절기가 11 월 말에 있는 추수감사절입니다. 그들 조상들이 종교의 자유를 찾아 탈출한 신대륙을 향한 여정을 되새기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가족들이 만나서 교제하면서 소속감을 확인하기도 하죠. 우리도 그들의 절기를 감사의 절기를 기념하며 우리 삶의 근원되신 하나님과 다시 연결되고자 합니다.

3. 답답한 우리 삶을 열어주는 열쇠, 감사

우리 삶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과 다시 연결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지름길은 감사입니다. 감사가 넘치는 사람의 삶은 빛날 수 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감사 대신에 불평 불만, 절망, 분노의 감정이 가득한 사람은 얼굴 빛이 어둡습니다. 서로의 얼굴을 한

번 봐 보세요. 옆사람 얼굴에 빛이 나나요 아니면 어둠이 가득하나요? 감사는 짝 막힌 길을 열어주는 열쇠가 됩니다. 우리네 인생이 항상 좋은 일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불행은 갑자기 들이닥칩니다. 한밤 중 운전하는 차 앞으로 달려드는 사슴처럼 갑자기 뛰어들어 오는 것이 불행입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이 불행을 대하는 태도가 같지는 않습니다. 어떤 이는 감사를 선택하고 어떤 이는 불평과 분노를 선택하기도 합니다. 삶이 너무 힘든데 감사를 선택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찬송가 429 장의 가사는 우리 삶에 불평과 분노가 몰려 올 때 거기로부터 헤어 나올 힌트를 알려줍니다.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 주신 주의 복을 세어라. 주의 크신 복을 네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네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네가 알리라.” 삶이 스택되어 힘들고 우울함이 몰려 올 때, 그때 우리는 이 찬송의 가사처럼 받은 복을 세어 보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잠잠히 앉아서 그동안 내가 받은 복을 카운트 해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점점 나를 지배하고 있던 어두운 마음들이 밀려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 감사는 어둡고 그늘진 내 마음에 하나님의 빛을 반사하여 가져다 주는 거울과 같은 것이라 할 수 있겠죠. 어둠은 변함 없지만 하나님의 빛을 끌어와 어둠을 몰아내는 거울이 바로 감사입니다.

4. 어둠에 빛을 가져다 주는 감사

시인 오규원은 <어둠은 자세히 봐도 어둡다>라는 시에서 “어둠이 어두운게 아니라 어두운 게 어둠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이해하기 쉽지 않죠. 어둠은 실체가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어둠과 어떻게 관계를 맺느냐에 따라 어두운 것일 수도 있고 밝은 것일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시의 다음 행은 이렇게 이어집니다.

“어두운 게 어둠이므로 어두운 날 본 모든 것은 어둠이다.
어두운 게 어둠이므로 어두운 날 본 꽃도 사랑도 청춘도 어둠이고
어두운 게 어둠이므로 어두운 날 본 태양도 어둠이다.
그러니까 어두운 것으로 뭉친 어둠은 어둡지 않는 날 봐도 역시 어둡다.”

세상을 보는 나의 시선에 어둠의 선글라스를 끼면 세상 자체가 어둠이 되어버린다는 말인듯 합니다.

우리는 하루에도 여러 번 지옥과 천국을 오가며 살아갑니다. 좋은 일이 있을 땐 기뻐다가도 서운하거나 나쁜 일이 있으면 나락으로 떨어져 버리곤 합니다. 많은 이들이 행복의 느낌을 잃어버리고 삶을 버거워 합니다. 자신의 삶을 즐기고 누리는 탄력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생명이 선물이라는 것을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우리 삶이 신비로 가득한 축제의 장이라는 사실을 놓쳐버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 달 예배 후 목장 모임 나눔을 통해 실천해 보라 한 것이 무엇이었나요. 내 삶이 경이로 가득하다는 것을 알고 그것을 어떻게 느끼면 살 것인가 실천해 보라 했는데 기억이 나시나요? 우리가 삶을 선물로 여기지 못하고 즐기지 못하는 것은 생명을 선물로 주신 하나님을 향한 모독일 수 있습니다. 인생은 신비로 가득합니다. 나는 신비로 가득한 이 세상으로 보냄을 받은 존재입니다. 요한복음을 오랫동안 살펴보면서 예수님의 자의식 속에 가장 강하게 심어진 것이 무엇이라 했나요? '보냄을 받은 자'로서의 자의식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땅에 보내셨다. 나는 보내신 분의 뜻을 다 마치고 보내신 분을 향해 돌아갈 것이다.' 이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보냄을 받은 자를 위해 마련해 주신 하나님의 선물인 이 인생을 즐겨워 하라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우리가 불평하고 있는 것들조차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다하나 교회, 목장, 동료들, 형제 자매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어둠을 물리치는 가장 쉬운 방법이 감사입니다. 내 삶을 선물로 알고 즐기면서 누리면서 살아가는 방법이 감사입니다.

5. 가진 것이 많아서 감사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쉽게 가진 것이 많아서 감사할 수 있다 생각합니다. 하지만 가진 것이 많아서 감사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은 초막절 절기를 지키라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7 일동안 집을 떠나 초막에 들어가 살면서 절기를 기념하라는 겁니다. 초막에서 어떻게 축제가 벌어질 수 있나요? 초막에는 모든 것이 부족합니다. 화장실도 없고 침대도 없습니다. 그곳은 좁고 냄새나는 곳입니다. 하지만 그곳에서 광야를 간접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기억할 수 있습니다. 이집트를 탈출한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든 것이 부족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더 이상 노예가 아니었고 자유인으로서의 신분을 광야에서 확인했습니다. 광야에서 그들은 하나님과 연결된 언약 백성임을 알게 되었죠. 광야는 매일 기적이 일어나는 곳이었고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가까이서 체험하는 곳이었습니다. 그들은 그곳에서 결코 풍성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공급하시는 삶을 배워갔습니다. 초막절의 초막의 경험은 소유와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하는 삶이 행복임을 상기시켜 주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가진 것이 많아서 감사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마음이 하나님과 잇대어 있기 때문에 감사를 드리는 겁니다. 우리는 고통중에 있고, 부족함 가운데 여전히 있지만 낙심하지 않는 것은 주님의 사랑과 의로우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초막의 절기는 우리 삶의 인도자요 공급자이신 하나님이 내 삶을 책임진다는 것을 기억하게 해주었습니다. 초막에 머물던 시절을 잊어버리는 순간 사람들은 하나님을 잊어 버리고 맙니다.

톨스토이의 단편 중에 <작은 악마와 빵>이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러시아의 한 농촌에 표도르라는 가난한 농부가 살았습니다. 그는 새벽부터 밭에 나가서 밭을 갈면서 일했고 시장하면 나무에 놓아 둔 빵을 먹곤하였죠. 그런데 어느 날 빵을 먹으려는데 빵이 감쪽 같이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그는 맹물로 배고픔을 달래며 말했습니다. “오늘 하루 굶는다고 죽지는 않겠지. 누군가가 배고파서 빵을 가져갔겠지. 그 사람이라도 잘 먹으면 좋겠군.” 그런데 그의 빵을 훔친 것은 악마였습니다. 악마는 농부가 불평하며 죄를 짓게 하려고 빵을 훔친 것이었는데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농부가 악담을 퍼붓기는 커녕 오히려 축복을 했기 때문입니다. 대장 악마에게 돌아가 그는 크게 혼이 났습니다. 악마는 이번에는 다른 수를 써 보기로 했습니다. 이번엔 농부의 빵을 빼앗는 대신 농부의 빵을 늘려주기로 합니다. 악마는 농부의 하인으로 변신하여 농부의 농사를 돕습니다. 가뭄이 들 것을 알고 늪에 씨를 뿌리라 하고, 홍수가 날 것을 알고 산 꼭대기에 씨를 뿌리라 일러주었죠. 악마의 도움으로 농부의 공간만 넘쳐나게 됩니다. 곡식이 남아 돌자 악마는 그것으로 술을 만들라고 부추겼죠. 허기를 달래 주던 일용할 양식이 쾌락을 위한 도구로 바껴 버리게 된 것이죠. 술이 생기자 농부는 부자들을 집에 불러 들여 술을 마십니다. 술에 취하자 너나 할 것 없이 인간의 모습은 간 데 없고 동물의 모습으로 변해 버렸지요. 술에 취한 농부들은 으르렁거리며 서로의 말을 듣지도 않고 싸우기만 했던 것이죠. 비책을 묻는 대장 악마에게 악마는 대답합니다. 자기가 한 일이라곤 농부에게 필요한 양보다 더 많은 수확을 준 것 밖엔 없다고 말했습니다. 남아도는 것이 생기자 농부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자신의 쾌락을 위해 쓰기 시작했고, 그때부터 인간의 마음에 묶여 있던 여우와 늑대와 돼지의 피가 다 뿜어나오더라는 것이었습니다. 부족함이 없는 것이 감사의 제목이 아니라, 나눌 수 있는 삶이 우리의 감사의 제목이 되면 좋겠습니다.

6. 나누며 살아요.

추수 감사절은 나눔의 절기가 되어야 합니다. 교회는 많은 재물을 축적하는 순간 타락의 길로 떨어지고 맙니다. 꼭 필요한 것을 제외하고는 자꾸 나누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올해는 못했지만, 내년 추수감사절에는 우리가 특별 헌금을 모아서 불우한 지역 주민들이나 선교지에 후원하면 좋겠습니다. 성탄절 같은 의미 있는 절기에도 우리의 가진 것들을 조금씩 모아서 좋은 일에 드리는 습관과 리터지들을 만들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같은 구원의 경험을 한 신앙 공동체입니다. 또한 우리는 같은 지향점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매년 돌아오는 절기때 마다 우리는 우리 삶의 근원과 연결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내 삶을 이곳으로 부르셨고,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이 곳에서 많은 이들과 생명을 경축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파트릭의 음식을 나눠주신 분들께 감사합니다. 음식을 나눔이 작은 것 같지만, 이 식탁이 바로 천국 잔치입니다. 식탁을 나누는 이런 리터지가 교회에 더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감사의 절기에 우리의 마음이 우리 삶의 근원 되신 하나님께 깊이 연결되어 다시 풍성한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